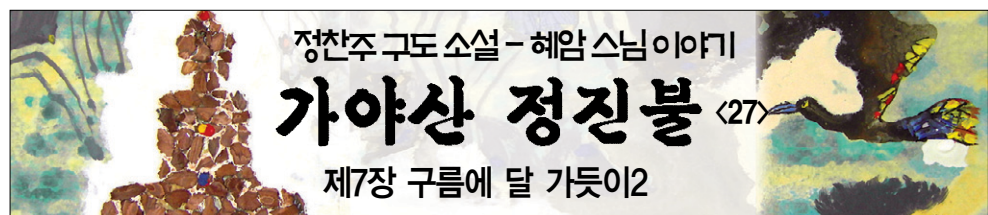


“부모님에게 불연의 복덕을 짓게 해주고 싶습니다”



정산주 구도소설 - 해암 스님 이야기
가야산 정진불 <27>
 제7장 구름에 달 가듯이2

해암은 김 행자를 데리고 장경각 뒤편의 가야산으로 올라갔다. 밀리는 올라가지 못했다. 인민군들이 어느 산중에 숨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수원이 고향인 김 행자는 기차를 타고 피난을 내려오다 부모를 잃고 직지사를 거쳐 해인사까지 흘러들어온 소년이었다. 미군 전투기가 피난열차를 오탁하는 바람에 다른 피난민들과 함께 부모가 죽었던 것이다.

“옆 자리에 계시던 스님이 이끄는 대로 뛰다가 돌아보니 열차가 불에 타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잠결에 겪은 날벼락이라 뭐가 된지 몰랐습니다.”

김 행자는 얘기하면서 몸을 떨었다. 한밤중에 미군 전투기 조종사가 피난민들이 탄 열차를 인민군 군용열차인 줄 알고 폭격했다는 것이었다. 말 그대로 날벼락이었다. 졸지에 부모를 모두 잃어버렸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스님의 손을 잡고 뛰었던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는 있었지만 하루아침에 고아가 돼버렸던 것이다.

“그 스님은 어디로 가셨는가?”

“저를 직지사까지 데려다 주고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 스님은 피난 중이었나 보군.”

“직지사에서 그 스님을 받아주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전쟁 중이라 질 살림이 어려워서 그랬을 거다.”

“맞아요. 저도 가라고 해서 해인사로 왔거든요.”

해암은 계곡을 더 오르지 않고 반석에 앉았다. 봄기름이 심해 계곡물은 말라 있었다. 김 행자가 물었다.

“스님은 왜 피난 가지 않습니까?”

“나도 떠나야지.”

“어디로 가실 겁니까?”

“정해 놓은 짚은 없다. 밭길 닿는 데가 절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때 삐죽삐죽 소리가 들려왔다. 세상이 소용돌이치고 있는데, 그것을 아는 듯 모르는 듯 먼 숲속에서 삐죽삐죽 울고 있었다. 그러다가도 미군 전투기가 굉음을 내고 나타나면 꼭 그치곤 했다. 김 행자도 전

“부처님이 은사스님을 보내주신다고요.”

“기도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다.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것은 독약을 마시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해암은 김 행자를 법당으로 들어가게 한 후, 인곡이 머물고 있는 극락전으로 갔다. 인곡은 해암이 삼배를 올리자마자 칭찬했다.

“잘 생각했다. 범어사로 간다고 했는가?”

“예.”

“어서 가봐라. 동산스님이 네게 보살계를 준 인연도 있고 하니 기꺼이 선방 입실을 허락하실 것이다.”

“스님, 범어사로 갈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어디로 간단 말이나.”

“속가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인곡이 고개를 뒤로 젓으며 놀랐다. 자애로운 미소를 거두며 방바닥에 놓인 염주를 들었다. 실망한 마음을 다스리려는 듯 염주 알을 굴렸다. 인곡은 갑자기 맥이 풀린 듯 나직하게 말했다.

“너마저 속퇴하겠다는 말이나.”

“아닙니다.”

“속퇴가 아니고 무엇이람 말이나.”

“속가로 돌아가더라도 제 마음은 해인사에 있을 때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곡의 언성이 평소와 다르게 커졌다.

“지금 네가 나를 우롱하는 것이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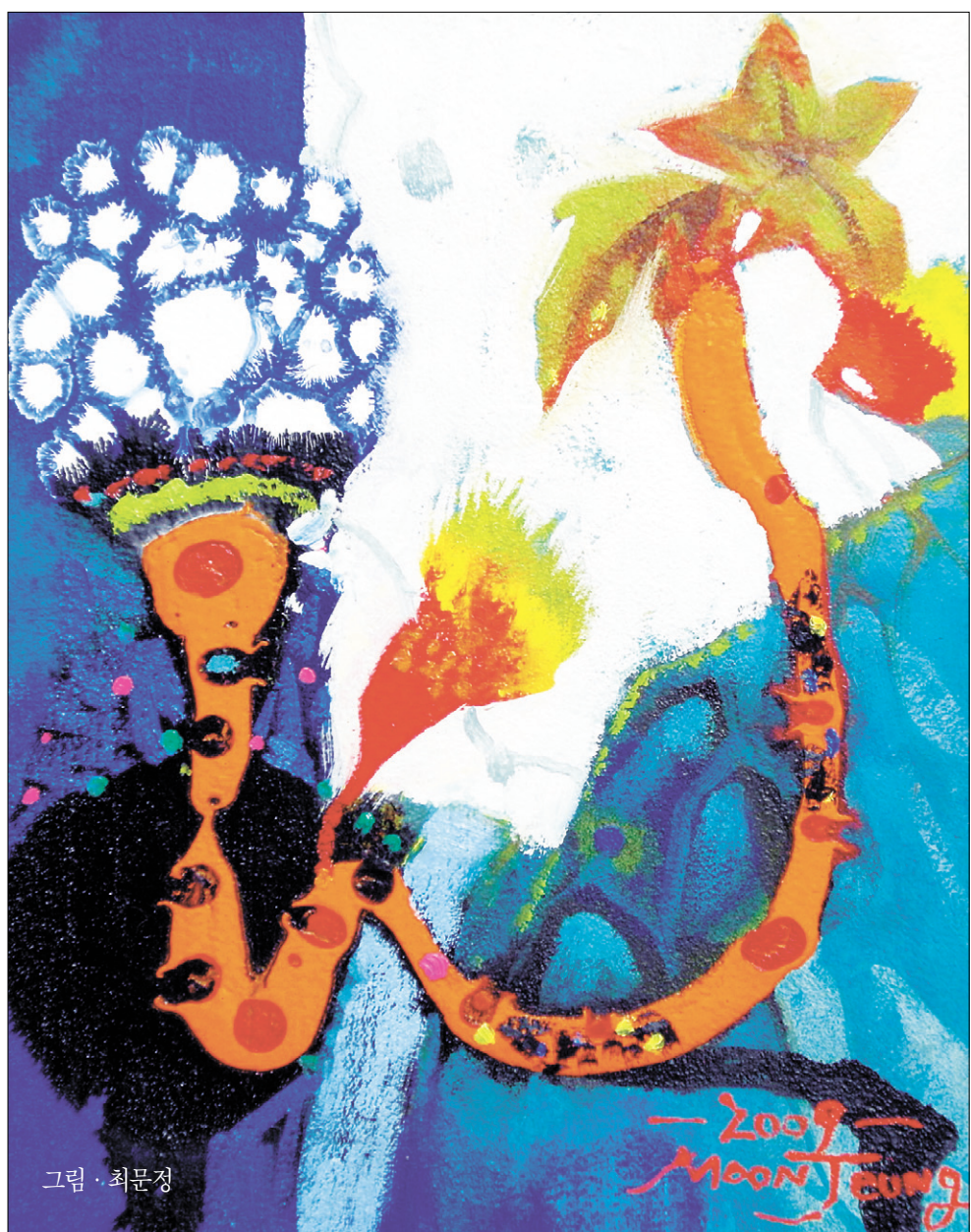
“스님,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오해가 풀리실 것입니다. 잠시라도 스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려 송구합니다.”

해암이 한 번 고집을 피우면 꺾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곡은 몹시 난감해 했다. 그렇다고 속가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제지를 두고 방관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인곡이 다시 말했다.

“내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냐.”

“전쟁 중이라 누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김 행자도 해인사에 오기 전 부모를 모두 잃었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속가 부모님과 언제 헤어질지 모릅니다. 언제 재앙을 만날지 모르는 것이 전쟁입니다. 속가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속가 부모를 피난이라도 시키겠다는 것이



논밭으로 나가 일하고 있었던 것이다.

해암은 저녁 무렵에 속가 부모를 만났다. 출가한 승려였으므로 부모에게 엎드려 인사하지 않고 합장한 채 안부를 물었다.

“그동안 별고 없으셨습니까?”

“농사를 짓다 말고 나같은 무지렁이가 어디로 피난 가겠느냐. 하루하루 목숨을 하늘에 맡기고 산다. 너도 피난 온 것이냐.”

“피난 온 것이 아닙니다. 잠시 머물다 가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부터는 아버님도 저에게 합장해야 합니다. 스님에게는 존댓말을 해야 합니다. 저는 자식이 아니라 스님입니다. 그래야 어머님 아버님 복덕을 많이 짓습니다.”

처녀로 성장한 속가 여동생이 뒤늦게 돌아와 반갑게 말했다.

“오빠, 방으로 들어가요. 마을 사람들이 오빠 왔다고 밤손님에게 소문낼 거예요.”

여동생은 인민군과 공비를 밤손님으로 불렀다. 장성도 밤이 되면 인민군과 공비들의 세상으로 돌변하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해암은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절했다.

“방에는 비린내가 묻어 있을 것이니 밖에서 자겠다. 마당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될 것이니 집 뒤 대나무 숲속이 어떻겠느냐.”

“잘 됐어요. 전쟁이 나자 작은오빠가 숨으려고 땅굴을 하나 파놓았거든요.”

“어머니, 음식은 비린내가 없는 것으로 하루 한 번만 갖다 주셔야 합니다. 잠은 자지 않으니 이부자리는 필요 없습니다.”

속가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였다.

“스님, 방을 놔두고 땅굴에서 잔다니요. 하지만 출가할 때 원대로 도인이 돼서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도인이라뇨. 아직 멀었습니다.”

해암은 바로 대나무 숲속에 판 땅굴로 갔다. 다음 날부터 속가 가족들은 마을사람들 몰래 땅굴로 가 해암의 법문을 들었다. 해암은 속가 가족들에게 부처님의 일대기인 <팔상록>부터 얘기했다.

“부처님은 정반왕과 마야부인의 아들로 태어나 태자의 지위를 버리고 생로병사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출가했습니다. 그러다 전정각산에서 6년 고행을 한 뒤, 보리수 아래서 정각을 이루어 생사해탈한 분입니다. 속세의 삶은 오욕락을 추구하지만 출가는 생사해탈의 길입니다.”

속가 아버지가 먼저 해암의 법문에 반응했다.

“나도 출가할 수 있겠는가?”

“스님들 중에는 나이 드시어 출가한 분이 많입니다.”

“더 생각해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전쟁은 곧 끝날 터이니 그때 해인사로 오십시오. 부처님 가족도 모두 출가하여 아라한이 됐습니다. 우리 가족도 불법을 만나 생사

해탈해야 합니다.”

해암은 대나무 숲속 땅굴에서 하루 종일 정진했다. 그러면서 가족을 상대로 부모님, 여동생, 남동생, 조카에게 차례차례 법문을 했다. 속가 가족은 해암의 법문에 모두 크게 공감을 했다. 뿐만 아니라 하루 한 끼의 공양과 땅굴 속에서 장좌불와 하는 해암을 도인으로 여기고 받들었다.

인민군이 땅굴을 발견하고 해암을 불러내 위협을

가했으나 몇쩍게 돌아가기도 했다. 인민군이 보아도 수행만 올곧게 하는 진짜 승려 같았던 것이다.

“당신 뭐하는 사람이요.”

“난 중이요.”

“중이 뭐하는 사람이란 말이요.”

“견성 성불하여 중생을 구제하는 사람이요.”

“중생을 구제하다니 인민을 해방시킨다는 말과 같구먼.”

“그렇소.”

“대사 선생님, 꼭 성불하여 인민을 잘살게 해주시오.”

인민군은 겨뻐던 총구를 내리고서는 돌아가 버렸다. 인민군이 땅굴에 들렀다 간 뒤, 해암은 자신의 의도대로 속가 집에 불연을 맺어준 것 같아 결망을 맺다. 가족들이 잠든 새벽에 범어사로 향해 나섰다. 덕산마을을 나서면서 해암은 휘파람새 소리를 들었다. 속가 시절에 들었던 그 휘파람새 소리였다. 사람들은 죄우로 갈라져 싸우는데도 휘파람새 소리는 예전 그대로 정다웠다. <계속>

“ 부처님 가족도 모두 출가하여 아라한이 됐습니다. 우리 가족도 불법을 만나 생사해탈해야 합니다 ”

누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쟁 중 피난보다 급한 건 속가의 ‘귀의’ 대나무 숲속 땅굴에서 정진하며 가족 상대로 차례 차례 법문 전하

투기 나는 소리에 몸을 움찔했다.

“스님, 저는 여기서 또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은사스님을 정해라. 사미승이라도 돼야 절밥 눈치 보지 않고 먹을 수 있으니까.”

“스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상좌를 둘 생각이 없다. 내 공부하기도 빠듯할 뿐더러 상좌 둘 법당도 아니다.”

해암이 거절하자, 김 행자는 풀이 죽었다. 스님들이 대부분 해인사를 떠나버린 탓에 은사를 찾기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방법이 하나 있다. 내 말대로 하겠느냐. 아무리 전쟁 중이라고 하지만 너는 운이 좋은 놈이다.”

김 행자가 어리둥절해하더니 눈을 반짝였다.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됐는데도 운이 좋다니요.”

“전쟁 때문에 불법을 만났으니 복이 많은 놈이라는 것이다.”

해암은 반석에서 일어났다. 김 행자와 한담이나 나눌 처지가 아니었다. 이제 자신도 해인사와 작별해야 했다. 선방 문이 닫혔을 뿐만 아니라 해인사를 떠나는 인곡의 당부도 모른 채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해암은 경내로 돌아오는 길에 김 행자에게 말했다.

“부처님께 기도해라. 부처님께 기도하면 네 소원을 다 이룰 수 있다. 밤낮으로 기도하다 보면 은사스님도 곧 내 앞에 나타날 것이다.”

“아닙니다. 죽고 사는 일은 사람의 업이겠지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속가 부모님이 불법을 깊이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불연(佛緣)의 복덕을 짓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제야 인곡이 해암의 두 손을 잡았다.

“네 말이 옳다. 어서 고향으로 가거라. 너야말로 속가 부모에게 효도를 할 줄 아는 진승(眞僧)이다.”

“범어사는 고향에 들른 후 가겠습니다.”

인곡은 해암에게 고향으로 가는 것을 허락했다. 언제 전쟁의 재앙을 당할지 모르는 속가 부모에게 불연을 맺어주겠다는 해암의 속마음을 알고는 크게 흐뭇해했다. 이윽고 인곡이 노잣돈으로 나들나들 닦은 지폐 몇 장을 꺼냈다. 오래 전에 신도가 놓고 간 돈이었는데 해암에게 다 주어버렸다.

해암은 결망을 매고 해인사 일주문을 나섰다. 마침 합천에서 작전 중인 미군에게 사정하여 군용 트럭을 타고 진양으로 갔다. 미군 트럭은 전방에서 후방으로 부상병을 실어 나르고 있었다. 안전한 미군 트럭을 타게 된 것은 행운이었다.

해암은 금요선사가 조실로 있는 진양 응석사에 도착한 뒤, 낮에만 걸어서 6일 만에 장성에 도착했다. 속가 가족들은 피난을 가지 않고 고향집을 지키고 있었다. 해암이 사립문 안으로 들어섰을 때 집안은 텅 비어 있었다. 모내기철이었으므로 식구들 모두

공부하다 죽어라

조계종 제10대 종정 해암 대종사의 선기가 살아 있는 수행 도량 원당암에서 '성불'의 길을 닦아 보십시오. 재가자 선수행의 중심도량 원당암은 영가단에 만년위패를 모신으로써 생사가 둘 아닌 도리 속에서 열반적정을 이루는 수승한 원력의 도량입니다.

정진안내

- 2009년 하안거 결제 5월 9일(음 4.15) ~ 8월 5일(음 6.15) ※ 윤5월 관계로 일정이 앞당겨졌습니다.
- 2009년 하안거 7일 옹맹정진 7월 22일(음 6.1) 03시 ~ 29일(음 6.8) 03시
- 철야 옹맹정진 매월 1,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동안 거결제 음력 10월 15일 ~ 1월 15일
- 산철결제 음력 2월 1일 ~ 3월 29일 / 음력 8월 1일 ~ 9월 30일
- 만년위패봉안대불사 합동천도제
매년 설날, 중앙절 (음력 9월 9일), 백중, 추석, 매월 음력 15일 (아미타재일)

해인사 원당암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www.wondangam.org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